

**우진아이엔에스, 공모가 15,000원 확정.. 총 공모규모 315억원**

- ▶ 로토프론 코팅 상용화를 통해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반도체 외 타 산업 진출 추진
- ▶ 9월 5일~6일 청약 진행 후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8-09-04> 우진아이엔에스의 공모가가 15,000원에 확정되었다.**

기계설비 전문기업 (주)우진아이엔에스(대표이사 홍평우, 손광근, 홍경모)는 지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총 611개 기관이 참여해 129.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밴드 하단인 15,000원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예측결과 우진아이엔에스는 315억원으로 공모규모를 확정했으며, 공모가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1,143억원 수준이다. 우진아이엔에스는 이번 공모 자금을 통해 로토프론 코팅 상용화를 위한 설비투자과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증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진아이엔에스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직원들과 투자자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공모가 밴드 하단수준인 15,000원으로 공모가를 최종 결정했다"며, "기계설비 분야의 오랜 업력과 하이테크 기계설비 분야의 선도기업의 시장지위를 감안하면 현 공모가는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우진아이엔에스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하이테크 기계설비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률 18.4%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진아이엔에스 손광근 대표이사는 "우진아이엔에스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코스피 시장 상장을 계기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외 타 산업으로도 코팅기술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신뢰에 보답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진아이엔에스는 오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하고, 1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